진안형 먹거리 계획 수립 논의

진안군·진안군의회, 먹거리 정책 간담회 갖고 우수 사례 청취·추진 방향 의견 나눠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와 김민규 군의장을 비롯한 의원, 진안군 푸드협의회 민간위원 6명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현재 군에서 군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중소농의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앞서 행정과 의회 그리고 군민과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먹거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대표의 발표로 진안군과 규모가 비슷한 먹거리 정책 선진 지자체의 공공급식을 비롯한 노인·아동 복지 먹거리 사업, 농민 가공센터의 활성화, 도시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도시권 지역 농산물 납품계약 확대 등의 사례들을 살펴봤다.

또한 커뮤니티링크 협동조합 나영삼 대표의 발표로 현재 진안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진안형 먹거리 계획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핵심 실행과제를 제시가 이어졌다.

또한 진안군의회 의원과 푸드협의회 위원 등 참석자들은 다른 지자체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군 접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먹거리 계획의 실행을 위한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실효성 있는 진안형 먹거리 계획의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잘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 방향에 소중한 길잡이로 삼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행복 무주 희망을 싹 틔우다!'

무주군, 내년도 시책·신규 사업 발굴 모음집 발간

무주군이 2023년도 시책·신규 사업(132개 사업, 총 사업비 811억 원) 발굴 모음집 '행복 무주 희망을 싹 틔우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지난달 19일과 20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던 시책·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민선 8기 군정방침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비롯해 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무주군 2023년도 시책·신규 사업발굴 모음집 '행복 무주 희망을 싹 틔우다!'

특히 소규모 예산으로 군민 복지수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 등에 비중을 둬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3년 시책 및 신규 사업 발굴 현황(사업비 등), 부서별 발굴 현황(제안·추진부서, 사업내용, 기간 등), 그리고 부서별 발굴 목록과 각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무주군청 이종현 기획실장은 "시책 모음집은 민선 8기 무주군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자 분야별 사업과 아이디어들을 지역과 주민을 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하는데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알찬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자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이 발굴한 2023년 시책·신규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과 △무주사랑 1000호에게 무주군이 쏜다(고향사랑기부), △태권도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 △군정 홍보채널 무주투데이 운영, △반딧불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농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을 비롯해 △무주산골마을 예술제 개최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급성기 질환 어르신 한시적 요양지원, △생활폐기물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창의력 체험놀이터 운영 등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발굴된 사업들은 사업 실현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 주민 만족도 등에 대한 추진 부서 검토 의견을 반영해 202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무주다움을 실현하고 군민 행복을 지향하는 무주군 공직자들의 의지가 군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한국농어촌공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협약

장수군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최훈식 군수, 편동현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오형식 전라북도 농축산유통과장을 비롯한 양 기관 업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실시설계부터 공사 준공 후 인수·인계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하기로 협의했다.

군에 따르면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사업으로, 2024년까지 3년간 총 300억원(국비160억원, 도비48억원, 군비 92억원)을 투입해 장수군 두산리에 4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이로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포기하는 청년 창업농들은 스마트팜을 적정 임대료로 임대해 첨단 농업경영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

최훈식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경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장수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지역 소멸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장수군이 동부권 스마트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방문 격려

전춘성 진안군수, 애로사항 청취… 25일까지 4081톤 매입 추진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달 31일 2022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현장을 찾아 매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에 따르면 성수면 농협창고를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총 28회에 거쳐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4,081톤(10만2,025포/40kg)에 대해 매입을 실시하며 기간 내 배정물량의 전량매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건조벼 매입만 실시하며 농가가 수분함량 13~15%로 건조한 후 읍면별 매입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매입한다.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해담쌀'이며,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타품종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장을 찾은 전춘성 군수는 "일손 부족, 병해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수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영농에 최선을 다해주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원활한 매입이 이뤄지도록 관계자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12월 31일까지 건조벼 수매

무주군이 2022년산 건조벼(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곡)에 대한 수매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11월 1일 무주읍을 시작으로 6개 읍·면(10개 창고)에서 12월 31일까지 미곡 수매에 들어간다.

올해 수매 물량은 211만4천320kg(5만2,858포/40kg)으로 신동진과 해담 2개 품종이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 가격은 벼 40kg 기준해 특등품을 비롯한 1등~3등품까지로 전국 단일 가격이 적용된다.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정산할 계획이며, 3만 원을 중간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시장격리곡의 경우, 기존과는 다르게 공공비축미곡 수매와 같은 등급과 수매 가격을 적용해 추진함에 따라 공공비축미곡 수매와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며, 품위 규격은 수분이 13~15%로 건조된 벼만 매입이 가능하다. 수분이 13% 미만일 경우는 2등급을 낮추어 합격 처리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 평가 '우수'

무주군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2018년 10월 발표된 범정부 1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지방에 이양한 사업이다.

군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밥고개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49억7,900만 원을 편성해 보전금 대비 100%를 편성했다. 또 2022년 6월말 기준 48.8%의 집행률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둬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군은 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적극적인 업무협의와 함께 해당 사업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빠르게 대처했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상위30%)는 내년도에 △2022년 보전금과 동일한 보전금 배분 △감액 받은 자치단체의 보전 잔여분 재배분 △균형발전특별회계 차등지원제도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제16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성료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슬로건으로 지난 27일부터 4일간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에서 열린 '제16회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축제 마지막 날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시간과 함께 일부 프로그램 등이 취소되거나 운영시간이 단축되는 등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군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축제에 약 34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우마당, 농산물 부스 등에서 약 34억원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축제 기간 중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각종 공연과 경연,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이 선보였으며, 특히 △오사토의 달인을 찾아라 △장수한우마당 등 레드푸드 관련 행사와 △깃절놀이 △레드트롯페스티벌 △장수가야문화제 공연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준비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장수한바퀴 △수상자전거 △승마체험 △보물찾기 △사과 골프 △사과 볼링 △사과 낚시 △크레이지 로데오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홍삼축제 홍보대사 결과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2 진안홍삼축제 홍보대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홍삼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받은 17명은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포스터 부착 및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안홍삼축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방송 홍보와 개인·단체 활동 중의 대면 홍보 및 버스 운행을 하며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등 직장생활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홍보 활동을 계속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과 축제 성공을 응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홍삼축제를 홍보해 올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 이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